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홍해작전

뉴스

비상새벽기도로 홍해를 가르리라

2000년대를 향한 천국시민 생활운동이 될 제3차 홍해작전이 앞으로 10일 남았다.

이 홍해작전을 통하여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영적 각성을 지속시켜 나가고, 천국시민으로서의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기 위하여는 6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계속되는 비상새벽기도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 홍해작전 기간 동안의 이 비상새벽기도회가 개인과 가정, 교회,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도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참모본부는 이미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들을 발표하였다. 첫째는 개인과 가정을 위한 것으로서, 오직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원리로 삼고,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절제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한 자세로 선포하고, 교육과 선교와 구제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세상과 역사 앞에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사회와 국가를 위한 것으로서, 음란매체, 퇴



홍해작전 참모들은 매일 새벽 이른 시각에 교회로 나와 홍해작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사의 세부사항을 검토하며 준비하고 있다.

는 정근모 장로(과학기술처 장관)가 "천국시민의 경제생활"을, 12일에는 김인수 장로(고려대 교수)가 "천국시민의 윤리생활"을 각각 강의하게 된다.

지난 5월 20일에 있었던 교역자들과 장로들에 대한 설명회 및 기도회에 이어, 오늘 오후 2시 30분에는 갈릴리 홀에서 교구일꾼과 교사들에 대한 설명회와 기도회가 열린다. 이 모임에서도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직분자들에게 나눔의 센터 운영, 각 교구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원 계획과 봉사계획 등 홍해작전의 각종 행사의 세부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고 홍해작전의 성공적인 수

"천국시민의 경건생활", "천국시민의 경제생활", "천국시민의 윤리생활"을 주제로 영성잔치도

폐업소, 사치풍토, 마약, 폭력과 같은 비성경적인 사회악이 하루 속히 추방되고, 그릇된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되고,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이 복음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것이다.

충현의 성도들은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이 비상새벽기도회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새롭게 변화됨으로써 혼탁한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다.

충현의 가족들이 성숙한 천국시민의 생활을 다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0일, 11일, 12일에는 저녁 7시부터 천국시민 영성잔치가 배풀어진다. 이 영성잔치에서는 세 차례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영성잔치 첫날인 10일에는 임옥 목사(영양교회 당회장)가 "천국시민의 경건생활"을, 11일에

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하게 될 것이다.

참모본부는 이 작전에서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전교인을 15개 교구대로 편성하였다. 교구대장인 각 교구의 담당 교역자, 제1교육위원장, 지도교역자는 조직을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홍해작전의 성공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직분자들의 헌신적 봉사를 독려하며, 동원 연락망과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지역장과 부장은 조직의 활동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모든 조직의 본이 되도록 한다. 부지역장과 부감은 지역장의 지휘에 따라 구역장을 총괄하고, 지역장의 임무수행을 적극 지원하며, 지역 식구의 참여를 계속 독려한다. 홍해작전 수행의 최일선에서 헌신, 봉사하게 될 구역장과 교사는 성도들의 집회 참석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새신자, 낙심자, 전도대상자를 교역자에게 보고한다. 교구간사와 과장은 모든 연락망을 관리하고 각종 보고서를 집계, 관리하고 행사를 지원한다.

홍해작전 일정

- 6월 3일 : 홍해작전 진군 예배
- 6월 6일 : 제1차 총동원의 날
- 6월 10일~12일 : 천국시민 영성 잔치
- 6월 17일 : 제2차 총동원의 날
- 6월 18일~19일 : 나눔의 센터 운영
- 6월 20일 : 사랑의 집 기공식, 돌성경 봉헌식
- 6월 24일 : 승전감사예배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밤 12시가 넘는 시간에 요란스럽게 울리는 머리 말의 수화기를 들었지요. "목사님이시지요?"라고 하는 말과 함께 울고 있는 가냘픈 목소리를 감지할 수는 있었지만 한동안 무슨 용건인지 몰라 귀찮은듯 여러 말로 확인하고 나서야, 잘못된 사연을 안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부족한 저에게라도 의논하고 싶어 전화를 거신 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에게 전화를 거신 분이 어느 교구의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으나, 전화로 함께 기도한 후 제발 자기를 위하여 판단하지 말고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 한번 더 참고 양보해볼 수 없겠느냐고 간단히 권면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지요.

그날밤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성도님의 뼈아픈 문제를 너무 형식적인 답변으로 소홀히 말씀 드린 것 같아 또다시 전화라도 받게 된다면 같이 울어 주고 싶은 마음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소식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를 들어 주시어 문제 해결이 잘 되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만 아직도 몸부림이라도 치고 계시면서 냉정했던 목사에게 다시 전화할 용기조차 갖지 못하고 우울해 하실 성도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귀구명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주시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강단 앞에 앞드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0. 5. 27

이 중 윤 목사

기도 제목

가.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1. 우리의 신앙과 생활원리는 오직 말씀으로
2. 깨끗하고 건전한 삶을 위해 가정 경건을
3.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절제생활을

나. 교회를 위하여

1. 하나님 말씀의 신실한 선포를
2. 교육, 선교, 구제의 풍성한 열매를
3. 세상과 역사 앞에 소망을

다.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1. 비성경적인 사회악 추방을
2. 비신앙적, 비인간적, 비윤리적인 그릇된 가치관의 수정을
3.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천국시민 생활 운동 실천 강령

1. 힘을 다해 예배드리고
2. 힘을 다해 절제하고
3. 힘을 다해 봉사하자



성경 강해

이 중 운 목사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일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요 9 : 1~3)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에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빛으로 인간들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으며, 5장부터 8장까지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그 빛을 쫓아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소경을 만나주시는 장면으로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성전으로 들어가신 후 유대 지도자들에게 쫓기시어 도망치다시피 나오시다가 성전 문 앞에서 소경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8장 마지막 부분과 9장 초두에 나타납니다. 이 소경은, 동전 한 닢 집어던지고는 굉장한 구제를 한 것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의 구제의 대상이었으므로, 그 성전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맑은 눈으로 만상을 볼 수 있었지만 실상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쌍하게 앉아 있는 저지 소경은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저지의 육신의 눈까지 뜨게 해 주심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눈을 밝혀 주신다는 것은 한 인간을 완전한 인간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1. 소경을 보신 예수님

첫째, 예수님께서 만나신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요 9 : 1).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므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고,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했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와 계신 것도 알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고전 2 : 14).

둘째, 소경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경은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서 계신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중요하신 분인지도 모르니 예수님을 찾을 리도 없습니다 (롬 3 : 11). 죄로 물든 인생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합니다.

셋째, 소경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니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수 없으니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기적은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가장 성숙하게 되는 시간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본문의 소경은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으며 부를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 주님이 먼저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복음을 듣고 이러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절망과 무능 가운데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들에게 희망과 감격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쳐지면 메마른 땅에서도 씨가 싹을 내며 기어코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말라 비틀어져 길바닥 같고 돌쪼발 같고 가시밭 같은 인간들의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를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복음을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자비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2. 소경의 필요를 아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셨을 뿐 아니라, 그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엄마가 아기 주변에서 아기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듯이, 주님께서서는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구하지 않고 울고만 있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에 대하여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괴로워하고 근심하며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인간들은 그것을 잊고서 계속 괴로워합니다.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하고 멸시하고 주님도 나를 떠나 계신 것 같은 때에도 주님께서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3. 고난의 의미

사람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을 보지 않고 범죄치 않으며 살아갈 수 있으니 좋겠다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몇 미터만 가보면 소경의 답답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을 감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고통 중의 하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소경을 보고 예수님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의 죄 값입니까, 부모의 죄 값입니까?”라고 여쭙었습니다 (요 9 : 2). 당시에 이방인은 전생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 값을 이생에서까지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부모의 죄 값이 자식에게까지 물려 내려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손에게 복을 끼치지만 (민 14 : 18),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3, 4대까지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출 20 : 5).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람이나 부모가 범한 죄 값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심으로 두 가지 질문을 다 거부하셨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소경을 고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합하여 유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행함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불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다행한 일만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며, 인간의 불행함을 복으로 변화시키시는 사랑과 능력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불행한 일을 저주하고 피하고 만나기를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불행함을 상대하시면서 자비를 나타내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첫째, 고난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는 방법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인생들에게 고통의 날을 주십니다 (시 118 : 67; 히 12 : 5~11). 죄와 허물을 빨리 고백하고 복을 받는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고난은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요 9 : 3). 어떤 종류의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이 내 죄 값으로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됩니다 (요 1 : 14). 쓴 약도 먹어야 되듯이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

므로 (시 119 : 71) 고난이 올 때에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 자기의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고난이 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고후 1 : 9).

넷째, 고난은 인간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심으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히 5 : 8).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도 있거니와 우리들 앞에 오는 고난을 애써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인격이 깨끗해지고 고상해지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고난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후 1 : 14). 다른 사람의 슬픔을 연구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자기에게만 유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므로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갖게 됩니다 (벧전 4 : 12).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은 의로운 고난을 말합니다. 내가 죄짓고 쫓겨다니는 고난이 아니라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런 모습을 나타내는 때는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까지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성도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성경 잘 외우고 기도 많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 망해도, 다 빼앗겨도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진리를 따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길이 하나님 앞에 유익된 길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어려움을 당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악한 일은 하지 맙시다.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제 3 차 흥해작전 캠페인 (1)

2000년대를 향한
천국시민 생활 운동

“힘을 다해 예배드리고”

참모본부 제공

오늘날 이 사회가 혼란과 거짓, 사치와 타락, 음란과 폭력으로 가득차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인간이 인간 자신을 높이고 피조물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이 배은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주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사랑하고 섬겨야 할 자리에서 증오하고 오만하였으며, 통회자복해야 할 시간에 욕심만을 추구한 결과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

사랑과 찬양과 경배, 그리고 헌신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뿐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체험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의 충만한 역사를 따라 예배를 생활에 옮겨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시간이 지루할 수밖에 없고 신앙없는 예배는 무가치하다. 복을 받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고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예배드리지 말아야 한다. 예배에서 하

예배는 계속되어야 하므로 일 주일에 한번의 예배로는 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의 경건생활과 가정의 경건생활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는 대단히 중요하며 자녀들의 신앙훈련에 꼭 필요한 것이다. 자녀가 일년 내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예배 한번 경건하게 드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찬송을 부른 적이 없고 부모의 기도하고 성경읽는 모습을 구경해 보지 못했다면 이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로마서 12장은 삶으로서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의 출발점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이다.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다.

힘을 다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자.

1. 예배를 생활에서 최우선으로 한다.
2. 주일을 반드시 성수한다.
3.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린다.
4. 예배를 보지 말고 드린다.
5. 복을 받기 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6. 예배에 절대로 지각하지 않는다.
7. 공동예배를 위해 바른 자세를 가지며 안내자의 안내에 순종한다.
8. 어린아이로 인해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9. 가정예배를 반드시 드린다.
10. 자녀에게 경건한 생활의 본을 보인다.
11. 예배가 생활로 이어지는 삶을 산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참석하기,
예배 안내원에게 순종하기, 가정 예배드리기

도인들은 바른 예배의 회복만이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의 살길임을 인식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통회자복하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배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찾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들의 정성어린 응답이다.

예배드리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나님의 말씀만(설교) 듣고 자신을 드리는 예전을 망각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행위이다. 또한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나 다른 예배순서를 부차적으로 생각하여 예배에 지각하거나 설교자에 따라 예배를 외면해 버리는 것은 예배의 기초적인 이해가 없는 것이다.

예배는 교역자나 특정한 사람만 드리고 자신은 방청하는 소위 “보는 예배”가 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예배는 자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것이므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어린아이로 인해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전도회 말씀 전파에 전력



서울대공원에 나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 기도로서 준비하는 루디아 제3지구 회원들.

회원들을 “구원은 오직 예수”라고 썬여진 어깨띠를 두르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전도지를 배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다. 또한 몇몇 회원들은 찬양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기도 하였다.

한편 루디아전도회 제3지회는 지난 22일 서울대공원에서 노방전도를 하였다.

회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였다.

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 사업에 온 교인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

요한전도회 협의회는 “교회 부흥을 위한 90년도 전도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0일 4부 예배 후에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로 노방 전도를 나갔다.

30세에서 39세까지의 남자 성도들로 구성된 요한전도회는 전도를 나가기 전, 전도위원회 지도 목사인 김광석 목사의 인도로 기도회를 갖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였다.

제 5 차 세례식 신임 정기봉 목사
제14교구 담당



우리 교회는 지난 5월 23일 수요일, II부 예배 때 올들어 다섯 번째 세례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49명 이었고, 29명이 학습을, 19명이 유아세례를 받았다. 또 3명이 입교하였고, 2명이 개종을 하였다.

감사의 예물 답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수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권사회(회장 이옥녀 권사)는 오는 8월 우리 교회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선교대회를 대비하여 250여만 원 어치의 식기를 구입하여 교회에 기증했다.

제2교구 김구형 집사와 익명

당회는 지난 5월 9일 정기봉 목사를 우리 교회 부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하였다.

정기봉 목사는 86년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87년도 수도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창신교회, 서대문교회, 강남교회에서 시무해 왔다.

앞으로 정 목사는 제14교구를 맡아 수고하게 된다.

과 네온싸인은 설치하는 데 써달라며 헌금을 했다.



천국시민생활



차 신 득 장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근검·절약’이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가 있었고,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는 속담이 알뜰하게 살아보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인용되기도 하였다.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늘 배고팠던 시절이라 좋은 옷, 좋은 집, 문화생활이란 꿈에나 그려보는 것이었기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끼고 절약하였으며, 일 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몸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요즘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뀐 느낌이 든다. 웬만한 가정이라면 의식주문제의 해결은 물론이요 문화적인 생활에까지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칭 중산층이라고 생각하

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변해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공장 근로자들도 야근수당을 안받아도 좋으니 야근을 원치 않는다고 하며, 공사관에서 일하는 잡부들도 택시타고 출퇴근하며, 구두닦는 곳도 해가 떨어지면 찾기가 어렵고, 상가들도 주말에는 철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일은 적당히 하고 내 시간 갖기를 원하게 되었고, 여가선용이나 건강문제, 재산증식문제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으며,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로워짐이 사회 구성구석에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음을 지나쳐 버릴 수가 없다. 수십만 원짜리 장난감, 백만 원이 넘는 과외수업, 천만 원대의 가구나 외제차의 인기, 역대가 넘는 골프회원권,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이 있는 호화주택, 부동산 투기, 향락산업의 번창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우리 주위에서 자주 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열심히 일하며 살아보려는 사람들의 근면 정신도 많이 퇴색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서곤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회가 이렇게 될 때까지 천만 명이 넘는다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무얼하고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하

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천국시민으로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를 한번쯤 진지하게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의 제사장적인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세상 흐름에 역류하여 천국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위탁 받은 청지기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청지기의 사명이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쓰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아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천국시민에겐 절제, 검소, 자기성찰의 소극적인 면과 이웃을 향한 구제, 봉사, 사랑의 실천 등 적극적인 면이 조화 있게 나타나야 할 것이며 이러한 천국시민생활이 점점 퍼져나갈 때 우리의 이웃도, 우리 나라도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제3차 흥해작전을 통하여 온 교회가 천국시민생활의 실천으로 구체적인 열매가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이러한 천국시민생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도한다.

다음호 세기동은 김광신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간증

가정을 구원시킨 기도의 능력



김승배 집사

교회라고는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난 나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별 다른 어려움 없이 가족들의 사랑 안에서 고풍하게 자랐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내가 어린시절 교회에 다니는 것을 별로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던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충현교회로 옮기고 난 다음부터는 더욱 열심히 한 주일도 빠짐없이 다녔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부모님께서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시기 시작했다. 더욱이 제사를 지낼 때는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와 집안의 어른들은 집안 망칠 놈이라고까지 했다. 나에 대한 핍박은 점점 심해졌다. 그렇지만 나는 결코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교회를 가려고 하면 부모님께서는 성경과 찬송가를 감추어 버리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찬송가가 감추어진 곳을 알려 주셨다.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결국 두 손을 드셨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후련한 마음이 없었다. 부모님과 함께 교회로 나오는 친구들을 볼 때 무척 부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친구들처럼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다닐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고등학교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도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교제를 나누기로 마음을 먹고 시간이 있는 대로 기도하였다. 그 당시 제일 큰 기도 제목은 부모님께서 하루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기도생활은 오래 가지 않았다.

대학교에 들어가니 별천지에 온 것 같았다.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는 곳인 줄 몰랐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특히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친구들과 놀러다니는 것이 더 즐거웠다.

그러다 어느 주일인가 교회에 갔다가 목사님께 불쑥 대담한 꾸중을 듣고 그날로 유년부 교사로 등록하였다.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처음에는 무척 싫었는데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교사리 같은 어린 학생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뛰어 놀다 보니 내가 왜 하나님을 멀리 했단가라는 후회스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게 된 나는 다시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 되었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였다.

군대에서 제대를 한 후 1년쯤 지난 어느 여름 날이었다.

수요예배를 드린 후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 얼마나 울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른다.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조용히 잠자리에 들면서 어머님께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가시라고 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시던 어머님께서 “그래, 다음주부터는 함께 교회에 나가자.”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아니, 이렇게 쉽게 대답 하실리가. 기도의 능력이란 과연 이런 것이구나.’라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는 아버님과 누나, 조카, 친척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데는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였는데 그만 실패를 하고 말았다. 나는 실로 7년이라는 세월을 온갖 고생을 겪으며 살았다. 괜히 회사를 그만두었구나하는 후회도 해 보았지만 모두 지나간 과거지사였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다.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을 시키기 위함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교회의 한 성도와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차츰 우리 집 사정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믿는 형제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가 만나게 해 주셨던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였다. 연단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새롭게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청소년 가장에게 사랑 전한 베드로전도회 제1지회



베드로전도회 제1지회는 지난 5월 20일 제1교구 내의 청소년 가장 3명을 초청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회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구제비를 전달하였다.

강남구역 복지과의 의뢰로 어렵게 살아가는 어린 학생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게 된 것이다.

마리아전도회 제9지회 사랑의집 건축기금 위한 바자회

마리아전도회 제9지회(회장 박애희 집사)는 사랑의 집 건축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바자회를 열었다.

한 성도의 가게를 빌려서 의류, 음식, 돗자리, 여름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였는데, 이날의 수입 전부를 건축기금으로 드렸다.

이 바자회는 건축 기금 마련뿐 아니라,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회원 간에 견고한 교제를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살롬경로대학 제주도로 수학여행

충현경로대학은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다. 학생 176명과 교사 7명이 참가하게 되는 이번 수학여행은 송기홍 장로를 단장으로 장영자 전도사를 지도 교역자로 모시게 된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간호사도 수행하게 된다.

충현경로대학에서는 이번 여행을 위하여 교우들에게 좋은 일기 가운데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화목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장년1부 반 및 가족 연합 찬양대회

장년1부는 지난 5월 20일 낮 12시 30분부터 소석관 407호에서 반 및 가족 연합 찬양대회를 가졌다.

148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대회에서 회원들은 크로마하프, 통소, 하모니카 등도 함께 연주하였는데, 회원들은 이

찬양대회를 준비하면서 회원간에 친교를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민음상은 여자 10만, 소망상은 여자 4,7만, 사랑상은 여자 1, 남자 2, 3만이 각각 차지했다.

충현다락방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22 과 제 2계명

성경 : 출 20 : 4~6; 신 4 : 15~19

요절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 : 24)

찬송 : 34, 40

제 49 문 제2 계명은 무엇입니까?

제2 계명은 ‘너를 위하여 어떠한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주임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 50 문 제2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가운데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제 51 문 제2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 계명이 금하는 것은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그의 말씀 가운데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 52 문 제2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2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소유주이시며 또한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열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설 명

우상숭배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 즉 인간중심주의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모독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될 뿐더러,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시한 방법대로 섬겨야 합니다. 아무 형상이든지 형상을 만드는 행위는 결코 안됩니다. 하나님은 형상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질 문

1. 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아야 합니까(신 4 : 15; 요 4 : 24) ?
2. 왜 다른 우상(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까(출 20 : 5) ?
3.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요 4 : 23~24) ?
4.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혹시 미신적인 요소나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 봅시다.